

	<h1>보 도 자 료</h1> <p>제공일 : 2023년 3월 10일</p> <p>사 진 : 포함(1매)</p>	작성과	의회사무과
		담당부서	부서장 : 김차민 팀 장 : 송재문 담당자 : 정민영
		연락처	061)830-5032

고흥군의회,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우주발사체 단 조립장 고흥군 건립 촉구

고흥군의회(의장 이재학)는 3월 10일 본회의장에서 이재학 의장을 비롯한 전체 군의원이 함께 ‘뉴스페이스 시대’ 우주강국 도약을 위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우주발사체 단 조립장의 고흥군 건립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해 누리호 체계 종합사업자로 선정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최근 우주발사체 단 조립장 부지 선정을 위해 전남 고흥군과 순천시 그리고 경남 창원시 등 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한다는 계획을 발표해 지자체 간 갈등을 부추기고 있어, 발사체 특화지구로 지정된 고흥군으로서는 실망을 감출 수 없다고 했다.

또한 평가항목도 정주여건, 인프라 구축, 지자체 지원 등으로 되어 있어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지정·육성한다는 정부 정책기조를 우선 반영하지 않은 채 기업체 편익 위주의 주관적인 기준이 다수를 이르고 있다.

이에 고흥군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국가의 균형 발전과 우주발사체 기술의 핵심지대로 육성하고자 하는 국가정책을 거스르지 말아야 하며, 자치단체 대상평가로 분열을 부추기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 이라고 했다.

또한 “지금이라도 발사체 조립장의 성공적 건립을 위해 ‘발사체 특화 지구로 지정된 고흥군과 협력체계를 구축’ 할 것을 6만 2천여 고흥군민과 전국 70만 향우들의 뜻을 모아 강력히 촉구한다” 고 강조했다.

